

# 감초주사의 효과와 사례

## Ⅲ

SNMC · 강력네오미노화겐

지난 호에 이어 이이노 시로우 박사(일본 성마리안나 의과대)의 바이러스 간염 문답식 해설집 《B형, C형 간염박사》(김경희 박사 편역, 98년 3월 태웅출판사)에서 감초주사에 관련된 마지막 부분을 옮겨 본다.

-편집인 도움말

### 1. SNMC(주 3회 40ml씩) 무효시의 대책

SNMC를 주 3회 40ml 주사 중인데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사용법을 변경하면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처음 40ml 주 3회 사용해서 GOT·GPT가 호전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우선 매일 40ml로 해볼 것이며, 그래도 효과가 없다면 1일 100ml로 증가시킵니다. 그것으로 효과를 보아 그 후 수주간 GOT·GPT가 정상화를 계속한다면 그때 처음으로 100ml에서 80ml, 60ml, 40ml로 1일 투여량을 단계적으로 감소시킵니다. 이렇게 해서도 안정된 상태가 계속되면 이번에는 횡수를 매일에서 주 5회, 주 4회로 점차 감소시켜 최종적으로 주 1회가 되는데 여기까지 이르기에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 생각하십시오.

단지 현재 보험에서 허가되기는 40ml까지입니다. 그러나 불원간에 100ml 사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2. SNMC의 부작용

인터페론을 투여했으나 효과가 없고 간경변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주 3회(1회 100ml) SNMC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부작용은 없지요?

100ml를 주 3회라면 부작용이 있느냐 없느냐의 경계점이라 하겠습니다. 만일 혈압이 상승하고 혈액 중의 K(加里움)이 감소되는 경우 SNMC의 부작용을 막아 주는 약 알닥톤 A를 사용합니다.

혈압에 관해 말하면 간경변의 사람은 병이 진행하면 할수록 낮게 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간경변이 진행되면 부종 또는 복수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내장의 혈관이 확장되어 혈액이 정체되기 쉽기 때문으로 특히 발에 부종이 생깁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혈관의 저항이 적어지고 그 결과로 혈압이 내려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간경변의 사람에게 SNMC를 사용할 때는 혈압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나트륨(Na)이 몸에 고이기 쉽게 되어 부종이 증강되는 편이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또 혈압 상승과加里움 저하라는 부작용은 이 약을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몸이 그런 상황을 시정하는 쪽으로 움직여 자연적으로 개선되는 수가 많습니다. 또 SNMC의 주사 횡수를 감소시킴으로 부작용이 없어집니다.

어떻든 간에 부작용이 있는 한 알닥톤 A를 사용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